

현안과제연구
2011. 3. 25

한·미/한·EU FTA가 충남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수행 : 김양중

한·미/한·EU FTA가 충남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수행 :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목 차

- I. 서론 / 1
- II. 충남의 통상현황 / 2
 - 1. 충남의 수출입 현황 / 2
 - 2. 충남의 대륙별 교역현황 / 4
 - 3. 충남의 EU 국가별 교역현황 / 5
 - 4. 충남의 업종별 교역현황 / 7
- III. FTA가 충남에 미치는 영향 / 9
 - 1. FTA체결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9
 - 2. 대미 영향분석 / 9
 - 3. 대EU 영향분석 / 11
 - 4. 농림어업 영향분석 / 13
- IV. FTA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방향 및 전략 / 19
 - 1. 발전방향 / 19
 - 2. 대응전략 / 22
- V. 요약 및 결론 / 30

I. 서론

-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음
 -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협상을 진행 중
- 특히 2010년은 인도와의 CEPA가 발효되고 EU 및 페루와의 FTA가 타결되는 등 개방화가 보다 진전된 한해였으며 이와 같은 개방화의 확대는 충남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에 충남은 충남경제의 장기 전략산업과 연계된 시장개방의 생산성 효과 및 고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을 추진해야함
- 특히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업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DDA와 동시다발적 FTA라는 두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
-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경북·충남·전남 등 농어업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시장개방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대책마련이 시급
- 국제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남의 지역경제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음(신동호, 2007)

- 즉, 동시다발적 FTA의 영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그러므로 FTA체결이 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산업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및 지역간·산업간 연관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함
-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미/한·EU FTA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II. 충남의 통상현황

1. 충남의 수출입 현황

- 중국·홍콩·EU¹⁾·미국은 충남의 주요 교역상대국임
- 2010년 현재 미국은 중국, 홍콩, EU에 이어 충남의 4위 수출국이며 특히 EU는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중국, 홍콩에 이어 충남 3위의 수출국임
- 그러나 이 두 지역으로부터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어(EU 9위, 미국 10위) 충남은 2010년 현재 이들 국가들에 대해 무역수지 우위를 점하고 있음

1) 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생긴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로 본 연구에서는 단일 국가로 표현

<표 2-1> 충남의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순 위	국 가 명	2010		2011(1월~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54,054	37.1	8,946	22.3
1	중국	20,341	32.2	3,368	15.3
2	홍콩	7,349	85.7	1,383	70.6
3	EU	5,065	19.5	577	-18.4
5	미국	4,717	40.0	640	-10.8
4	일본	3,296	23.4	746	76.0
6	대만	2,749	67.5	551	39.3
7	멕시코	2,160	-16.2	416	55.6
9	슬로바키아	2,113	7.9	205	-33.8
8	말레이시아	1,280	37.5	219	13.4
10	싱가포르	1,191	33.6	160	-9.6
11	브라질	753	161.0	93	14.0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2> 충남의 수입현황

(단위: 백만불)

순 위	국 가 명	2010		2011(1월~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4,893	30.1	4,746	28.1
1	일본	2,515	31.2	398	17.1
2	이란	2,451	11.6	591	20.8
3	아랍에미리트 연합	2,427	37.7	357	22.9
4	중국	2,215	16.6	394	16.1
5	인도네시아	1,918	34.4	437	31.1
6	호주	1,750	-4.1	383	61.5
7	쿠웨이트	1,742	60.5	377	72.3
8	카타르	1,509	102.0	352	61.1
9	EU	1,285	16.0	254	43.7
10	미국	1,059	37.7	226	32.0
11	사우디아라비아	927	10.2	182	18.6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0년 기준 충남의 대미 수출은 47.2억 달러이며 수입은 10.6억 달러로 36.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 교역액은 57.8억 달러
- 2010년 기준 충남의 대EU 수출은 50.7억 달러이며 수입은 12.9억 달러로 37.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 교역액은 63.6억 달러

2. 충남의 대륙별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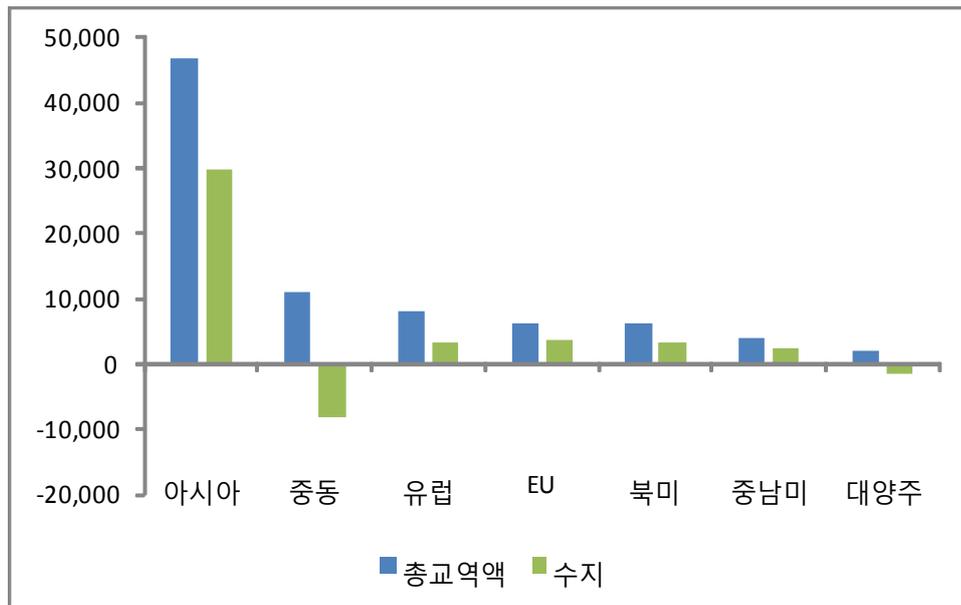
<표 2-3> 충남의 교역현황(2010)

(단위: 백만불)

대륙	총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아시아	46,829	38,278	8,551	29,726
중동	11,158	1,440	9,718	-8,278
유럽	8,112	5,704	2,408	3,296
EU	6,350	5,065	1,285	3,779
북미	6,309	4,858	1,451	3,407
중남미	4,072	3,232	840	2,391
아프리카	377	236	141	94
대양주	2,088	306	1,782	-1,477
기타지역	1	1	0	1
계	78,946	54,055	24,891	29,16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충남의 2010년 수출은 540.6억불, 수입은 248.9억불로 총교역액은 789.5억불이며 291.6억불의 흑자를 기록
- 충남의 2010년 대 세계 무역은 중동과 대양주지역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EU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흑자 지역임



[그림 2-1] 충남의 교역현황(2010) (단위: 백만불)

3. 충남의 EU 국가별 교역현황

- 충남과의 교역액이 가장 많은 EU 국가는 슬로바키아(21억불)로 전체교역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11억불) 18.5%, 헝가리(7억불) 11.4% 순
- 무역수지 흑자국가는 슬로바키아(21억불), 헝가리(7억불), 독일(4억불), 오스트리아(4억불), 순
- 무역수지 적자국가는 프랑스(-1억불), 영국(-0.8억불), 스웨덴(-0.6억불), 순

<표 2-4> 충남의 EU 국가별 교역현황(2010)

(단위: 천불)

국가명	총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금액	비중			
오스트리아	482,374	7.6	443,313	39,061	404,252
벨기에	151,462	2.4	77,147	74,315	2,832
불가리아	4,883	0.1	750	4,133	△3,383
사이플러스	31,928	0.5	871	31,057	△30,186
체코공화국	93,566	1.5	81,713	11,853	69,860
독일	1,169,856	18.5	823,623	346,233	477,390
덴마크	15,992	0.3	3,000	12,992	△9,992
에스토니아	1,251	0.0	857	394	463
스페인	63,368	1.0	49,986	13,382	36,604
필란드	13,916	0.2	8,428	5,488	2,940
프랑스	248,225	3.9	72,910	175,315	△102,405
영국	502,883	8.0	210,984	291,899	△80,915
그리스	23,655	0.4	4,116	19,539	△15,423
헝가리	720,838	11.4	712,605	8,233	704,372
아일랜드	54,358	0.9	49,498	4,860	44,638
이탈리아	188,263	3.0	107,971	80,292	27,679
리투아니아	6,592	0.1	6,140	452	5,688
룩셈부르크	1,742	0.0	82	1,660	△1,578
라트비아	1,310	0.0	1,287	23	1,264
몰타	579	0.0	508	71	437
네덜란드	158,770	2.5	98,748	60,022	38,726
폴란드	94,792	1.5	91,845	2,947	88,898
포르투갈	4,093	0.1	3,555	538	3,017
루마니아	47,113	0.7	42,590	4,523	38,067
스웨덴	87,682	1.4	13,001	74,681	△61,680
슬로베니아	31,402	0.5	16,110	15,292	818
슬로바키아	2,118,801	33.5	2,112,584	6,217	2,106,367
EU(계)	6,319,694	100.0	5,034,222	1,285,472	3,748,750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충남의 업종별 무역수지

□ 대미 무역수지

<표 2-5> 충남의 대미 무역수지(2010)

(단위: 천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0)	41,981	0.9	353,608	33.4	△311,627
축산물(02)	7,661	0.2	36,404	3.4	△28,743
축산가공품(024)	7,661	0.2	21,444	2.0	△13,783
광산물(1)	449,959	9.5	61,646	5.8	388,313
화학공업품(2)	202,355	4.3	257,429	24.3	△55,074
석유화학(21)	72,328	1.5	40,170	3.8	32,158
정밀화학(22)	33,482	0.7	132,715	12.5	△99,233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3)	73,966	1.6	32,056	3.0	41,910
섬유류(4)	6,981	0.1	6,470	0.6	511
편직물(436)	129	0.0	0	0.0	129
생활용품(5)	14,118	0.3	2,843	0.3	11,275
철강금속제품(6)	191,906	4.1	88,782	8.4	103,124
기계류(7)	1,030,595	21.8	150,073	14.2	880,522
자동차(741)	63,894	1.4	1,817	0.2	62,007
자동차 부품(742)	651,205	13.8	13,300	1.3	637,905
전자전기제품(8)	2,694,609	57.1	101,264	9.6	2,593,345
영상기기(821)	43,709	0.9	83	0.0	43,626
무선통신기기(812)	3,589	0.1	1,803	0.2	1,786
평판디스플레이(836)	580,452	12.3	4,043	0.4	576,409
잡제품(9)	10,713	0.2	5,316	0.5	5,397

자료: 한국무역협회(MIT 산업분류 기준)

- 충남의 대미 업종별 수출현황은 전자전기제품이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류(21.8%), 광산물(9.5%) 화학공업품(4.3%) 순
- 충남의 대미 업종별 수입현황은 농림수산물이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학공업품(24.3%), 기계류(14.2%), 전자전기제품(9.6%) 순
- 충남이 미국으로부터 무역적자를 보는 품목은 농림수산물과 화학공업품 임

□ 대EU 무역수지

<표 2-6> 충남의 대EU 무역수지(2010)

(단위: 천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0)	3,250	0.1	70,996	5.5	△67,746
축산물(02)	696	0.0	19,709	1.5	△19,013
축산가공품(024)	80	0.0	12,926	1.0	△12,846
광산물(1)	33,095	0.7	55,373	4.3	△22,278
화학공업품(2)	105,861	2.1	235,570	18.3	△129,709
석유화학(21)	50,202	1.0	30,017	2.3	20,185
정밀화학(22)	29,334	0.6	166,068	12.9	△136,734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3)	77,001	1.5	27,081	2.1	49,920
섬유류(4)	15,853	0.3	35,059	2.7	△19,206
편직물(436)	455	0.0	0	0.0	455
생활용품(5)	40,423	0.8	4,463	0.3	35,960
철강금속제품(6)	148,548	2.9	110,139	8.6	38,409
기계류(7)	249,009	4.9	636,624	49.5	△387,615
자동차(741)	1,560	0.0	25,426	2.0	-23,866
자동차 부품(742)	135,286	2.7	22,786	1.8	112,500
전자전기제품(8)	4,389,184	86.7	108,545	8.4	4,280,639
영상기기(821)	37,301	0.7	851	0.1	36,450
무선통신기기(812)	54,101	1.1	1,390	0.1	52,711
평판디스플레이(836)	2,988,379	59.0	3,051	0.2	2,985,328
잡제품(9)	2,385	0.0	1,593	0.1	792

자료: 한국무역협회(MIT 산업분류 기준)

- 충남의 대EU 업종별 수출현황은 전자전기제품이 8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류(4.9%) 철강금속제품(2.9%) 순
- 충남의 대 EU 업종별 수입현황은 기계류가 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학공업품(18.3%), 전자전기제품(8.4%) 순
- 충남이 EU로부터 무역흑자를 보는 품목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 잡제품이었으며, 무역적자를 보는 품목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품, 섬유류, 기계류 임

III. FTA가 충남에 미치는 영향

1. FTA체결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한·미와 한·EU FTA는 충남의 수출확대를 가져와 전반적으로 충남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은 대미와 대EU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므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충남은 제조업이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긍정적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농림어업의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EU의 평균관세율은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고,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달해 관세가 철폐되면 대 EU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2. 대미 영향분석

<표 3-1> 전국과 충남의 품목별 비중 및 무역수지 비교(2010)

(단위: 천불, %)

구분	수출비중		수입비중		무역수지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농림수산물	0.9	1.0	33.4	14.2	△311,627	△5,236,169
축산물(02)	0.2	0.1	3.4	2.8	△28,743	△1,105,740
축산가공품(024)	0.2	0.1	2.0	1.0	△13,783	△356,892
광산물	9.5	7.1	5.8	3.9	388,313	1,947,986
화학공업품	4.3	5.0	24.3	17.6	△55,074	△4,637,190
석유화학(21)	1.5	2.8	3.8	6.2	32,158	△1,105,529
정밀화학(22)	0.7	1.0	12.5	7.6	△99,233	△2,570,986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6	4.1	3.0	2.5	41,910	1,006,238
섬유류	0.1	2.4	0.6	0.9	511	853,976
편직물(436)	0.0	0.4	0.0	0.0	129	197,664
생활용품	0.3	0.9	0.3	0.7	11,275	161,665
철강금속제품	4.1	6.0	8.4	7.5	103,124	△55,893
기계류	21.8	34.1	14.2	30.4	880,522	4,685,250
자동차(741)	1.4	13.5	0.2	1.0	62,007	6,356,435
자동차 부품(742)	13.8	8.3	1.3	0.8	637,905	3,801,583
전자전기제품	57.1	38.8	9.6	20.4	2,593,345	11,121,887
영상기기(821)	0.9	0.7	0.0	0.2	43,626	257,152
무선통신기기(812)	0.1	18.4	0.2	1.2	1,786	8,677,522
평판디스플레이(836)	12.3	1.4	0.4	0.3	576,409	561,143
잡제품	0.2	0.7	0.5	1.9	5,397	△434,383
계	100	100	100	100	3,657,697	9,413,367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3-2> 한미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항목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혜예상	섬유류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57.5	10.5
	생활용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전자전기제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평판디스플레이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중립예상	광산물	X	15.4	26.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			
	잡제품			
폐해예상	농림수산물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27.0	71.9
	화학공업품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기계류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자동차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자동차 부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주: 중립예상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 기계류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미 FTA의 수혜 품목

- 교역구조를 고려하면 수혜가 예상되는 섬유류, 생활용품은 수출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아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물, 화학공업품의 경우 수입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아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기계류의 경우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

3. 대EU 영향분석

<표 3-3> 전국과 충남의 품목별 비중 및 무역수지 비교(2010)

(단위: 천불, %)

구분	수출비중		수입비중		무역수지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농림수산물	0.1	0.4	5.5	4.9	△ 67,746	△ 1,712,554
축산물(02)	0.0	0.0	1.5	1.4	△ 19,013	△ 548,279
축산가공품(024)	0.0	0.0	1.0	0.6	△ 12,846	△ 222,539
광산물	0.7	4.4	4.3	4.1	△ 22,278	764,378
화학공업품	2.1	4.4	18.3	18.3	△ 129,709	△ 4,730,946
석유화학(21)	1.0	2.4	2.3	3.5	20,185	△ 66,012
정밀화학(22)	0.6	1.4	12.9	11.3	△ 136,734	△ 3,647,85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5	2.6	2.1	1.8	49,920	691,240
섬유류	0.3	2.2	2.7	2.6	△ 19,206	138,786
편직물(436)	0.0	0.4	0.0	0.1	455	179,788
생활용품	0.8	0.6	0.3	2.3	35,960	△ 594,475
철강금속제품	2.9	4.4	8.6	7.4	38,409	△ 524,231
기계류	4.9	45.2	49.5	40.5	△ 387,615	8,518,520
자동차(741)	0.0	6.4	2.0	6.1	-23,866	1,063,963
자동차 부품(742)	2.7	5.8	1.8	3.7	112,500	1,684,725
전자전기제품	86.7	35.4	8.4	16.6	4,280,639	12,529,396
영상기기(821)	0.7	2.5	0.1	0.1	36,450	1,305,319
무선통신기기(812)	1.1	7.9	0.1	0.8	52,711	3,901,474
평판디스플레이(836)	59.0	10.1	0.2	0.4	2,985,328	5,250,649
잡제품	0.0	0.5	0.1	1.4	792	△ 294,382
계	100	100	100	100	3,779,167	14,785,732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3-4> 한EU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항목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혜예상	섬유류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87.0	11.1
	편직물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전자전기제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영상기기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무선통신기기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평판디스플레이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중립예상	광산물	X	5.9	15.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잡제품			
폐해예상	농림수산물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7.1	73.3
	화학공업품	부정적 영향은 전국과 비슷함		
	석유화학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정밀화학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기계류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자동차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자동차 부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주: 중립예상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 기계류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EU FTA의 수혜 품목

- 교역구조를 고려하면 수혜가 예상되는 섬유류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아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
- 한·EU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물과 기계류의 경우 수입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아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나 화학공업품의 경우 부정적 영향은 전국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4. 농림어업 영향분석²⁾

- 농림어업은 FTA로 인한 주요 피해품목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충남의 농림어업 생산은 전국 3위권이나 충남의 GRDP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농림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

<표 3-5> 시도별 농림어업 생산

(단위: 십억)

시도구분	2008		2009			
	총생산	농림어업생산	총생산	농림어업생산	비중	순위
전국	983,030	24,852	1,028,500	23,902	100.00	
서울특별시	236,517	333	248,383	443	1.85	11
부산광역시	52,680	412	56,182	459	1.92	10
대구광역시	32,261	161	32,714	139	0.58	14
인천광역시	47,780	248	47,827	239	1.00	12
광주광역시	21,281	187	21,745	180	0.75	13
대전광역시	22,186	51	23,218	44	0.18	16
울산광역시	48,059	144	52,408	123	0.51	15
경기도	193,658	2,728	198,948	2,517	10.53	5
강원도	25,989	1,506	26,311	1,257	5.26	9
충청북도	30,001	1,411	30,105	1,304	5.46	8
충청남도	55,148	3,215	57,974	3,199	13.38	3
전라북도	28,586	2,625	29,471	2,482	10.38	6
전라남도	47,021	3,647	52,387	3,356	14.04	2
경상북도	63,969	3,833	67,712	3,730	15.61	1
경상남도	69,157	3,030	74,280	2,981	12.47	4
제주도	8,736	1,321	8,833	1,450	6.07	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농림어업통계

2) 농림어업 영향분석은 DDA/FTA 농어업종합대책(2011)의 내용 일부를 인용

<표 3-6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과 농림어업의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GRDP	47,497,309	51,361,314	55,148,397	57,973,983	65,759,684
농림어업 GRDP	3,396,876 (7.15%)	3,412,165 (6.64%)	3,215,249 (5.83%)	3,199,384 (5.52%)	3,362,403 (5.11%)

자료: 통계청(KOSIS), 생산지수

주: ()는 전체 GRDP 대비 구성비임.

□ 충남의 농림어업 경쟁력 분석

- 충남의 경우 젓소, 돼지, 닭, 미곡, 토마토, 인삼, 배, 밤, 표고, 갑각류에서 타시도에 비해 특화되어 있음
- 수출경쟁력의 경우 인삼을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한 상황

■ 축산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한육우	×	△	×	×	△	×	○	○	×	×	·
젓소	○ ³⁾	○	×	×	×	×	×	○	○	×	○
돼지	○	○	×	×	×	×	×	○	×	×	·
닭	○	△	×	×	×	×	○	○	·	·	·
한우	×	△	·	·	·	·	·	·	·	·	·
육우	○	○	·	·	·	·	·	·	·	·	·

3) ○ : 안전군(有/上) △ : 저위험군(中) × : 고위험군(無/下)

■ 식량작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미곡	○	○	×	×	×	×	○	×	×	○	×
보리	×	×	×	×	×	○	○	×	○	○	×
콩	×	×	×	×	×	×	○	×	×	○	×
감자	×	△	×	×	×	×	○	○	×	·	·

■ 원예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토마토	○	△	×	×	×	○	○	○	·	○	·
고추	×	○	×	×	△	○	○	×	○	○	×
마늘	×	○	×	×	×	○	○	×	·	·	×
양파	×	×	×	×	○	○	○	×	×	○	×

■ 인삼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인삼	○	○	○	○	○	○	○	×	○	○	×

■ 과수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사과	×	△	×	×	×	○	○	○	·	·	·
배	○	△	○	×	○	×	○	○	○	·	·
복숭아	×	×	×	×	×	○	○	○	·	·	·
포도	×	△	×	×	×	×	○	○	×	○	×

■ 임업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밤	○	-	○	×	○	○	○	×	×	○	×
표고	○	-	×	×	×	○	○	×	○	·	×

■ 어업분야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어류	×	-	×	×	×	○	○	×	·	·	·
갑각류	○	-	×	×	×	○	○	×	·	·	·
연체동물 및 기타수 산동물	×	-	○	×	○	○	○	×	·	·	·
패류	×	-	·	·	·	·	·	·	·	·	·
해조류	×	-	·	·	·	·	·	·	·	·	·

- 충남이 타시도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품목은 젓소, 돼지, 닭, 육우, 미곡, 토마토, 인삼, 배, 밤, 표고, 갑각류임
- 특히 젓소, 돼지, 육우, 미곡, 고추, 마늘, 인삼은 매년 생산의 기복이 적어 경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대미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인삼, 배, 밤, 연체동물 정도였고, 대 중국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양파, 인삼, 배, 밤, 연체동물이었으며 대EU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인삼뿐이었음
- 대미수입으로부터 위협받는 품목은 한육우, 젓소, 돼지, 닭, 미곡, 콩, 감자, 배, 포도였으며 대EU수입으로부터 위협받는 품목은 젓소, 돼지였고 대중국수입으로부터 위협받는 품목은 미곡, 보리, 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밤, 표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이었음

- 대미 가격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한육우, 돼지, 미곡, 콩, 감자, 양파, 포도, 밤이었으며 대EU 가격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한육우, 잣소, 돼지였고 대중국 가격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미곡, 보리, 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포도, 밤, 표고로 나타났음

□ 예상 파급효과 분석

-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품목은 양돈이며 한육우, 낙농, 양계 순임
- 과수의 경우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순이며 원예의 경우 토마토, 인삼, 고추, 마늘, 양파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표 3-7> 품목별 생산감소액 추정

(단위 : 억원)

순위	품 목	생산액(2008년)			생산 감소액(발효15년차)			
		전국	충남	점유율	한-미 FTA		한-EU FTA	
					전국	충남	전국	충남
1	쌀	93,796	17,332	(18.5)	협	상	제	외
2	양 돈	40,853	7,570	(18.5)	1,874	342	1,214	225
3	한육우	35,476	4,507	(12.7)	3,147	410	526	67
4	낙 농	16,343	2,942	(18.0)	594	96	805	145
5	양 계	25,880	4,368	(16.9)	996	167	331	56
6	포 도	4,345	348	(8.0)	764	85	32	3
7	사 과	6,977	491	(7.0)	778	83	-	-
8	배	2,413	453	(18.8)	325	77	-	-
9	밤	1,394	543	(39.0)	113	47	-	-
10	복숭아	1,490	79	(5.3)	197	14	-	-
11	토마토	5,778	1,571	(27.2)	-	-	54	14
12	인 삼	8,749	1,896	(21.7)	43	8	-	-
13	고 추	12,152	1,051	(8.6)	72	6	-	-
14	마 늘	3,439	273	(7.9)	49	4	-	-
15	양 파	2,804	49	(1.7)	96	2	-	-
	총 계	465,731	63,176	(13.6)	10,501	1,415	3,032	509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 충남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은 한·미/한·EU FTA 발효 후 15년차에 1,924억 원 이상 감소 추정
- 양돈은 FTA 발효 후 15년 차에 567억 원이 감소되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여겨지며 한육우 477억, 낙농 241억 , 양계 223억 원이 감소
- 포도는 FTA 발효 후 15년 차에 88억 원이 감소하고 사과는 83억, 배는 77억 원이 감소
- 밤은 FTA 발효 후 15년 차에 47억 원이 감소
- 토마토는 FTA 발효 후 15년 차에 14억 원이 감소하고 고추는 6억, 마늘은 4억 원 감소
- 한·EU FTA가 발효되면 그 피해액은 한미 FTA 피해액의 27.4% 수준이며 한·중 FTA가 발효되면 그 피해액은 한미 FTA 피해액의 27.0~263.3% 정도로 추정되어 한·중 FTA가 충남 농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여겨짐

<표 3-8> FTA 농업 부문 피해비중

(단위 : %)

구분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피해비중	100.0	27.4	27.0~263.3

IV. FTA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방향 및 전략

1. 발전방향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 FTA는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개방과 경쟁이 강화된다는 의미로서 이는 반드시 이익을 보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가 동시 발생
 - FTA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를 보는 분야에서의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존 도차원의 기업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부실기업의 시장탈퇴를 도울 수 있도록 사업전환, 합병, 폐업 등과 관련한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됨
 - 또한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폭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충남 주력산업의 생산성 향상지원

- 충남 지역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인 충남의 4대 전략사업은 전자 정보 기기, 자동차·부품사업, 첨단문화사업, 농·축산 바이오사업이며, 따라서 이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부문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

- 현재 충남의 서비스산업에서 소비자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자서비스업 부문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조업 지원관련 정보처리, 광고, 연구개발, 법률·회계, 컨설팅, 엔지니어링 분야의 사업서비스 기능 확충이 시급함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가능한 선도기술형사업 중심으로 유치
 - 기술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투자유치하고 새로운 지식 및 기술관련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중심으로 유치
-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사업위주의 사업유치
 - 고부가 부품 소재 중심으로 유치해야 하며 특히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사업을 유치해야 함. 이는 충남의 국제수지(경상수지) 개선에 기여
-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또는 사회후생차원의 사업유치
 - 서비스R&D, 금융사업, 물류사업, 기타 인터넷관련 사업과 더불어 관광 리조트, 노인복지, 건강체육 및 놀이테마공원 그리고 각종 가스, 전기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사업 중심으로 유치
- 아울러 투자유치기업이 지역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
 -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와 더불어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농림어업 지원 및 내생적 지역발전역량 강화

- 농림어업은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임. 특히 충남은 농림어업 비중이 타시도에 비해 높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림어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함
- 아울러 지역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작물이 다시 지역에서 가공되고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책되어야 함

□ FTA에 대한 이해 증대

-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FTA로 인한 지역별·산업별 영향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함
- 특히 FTA는 경제통합이 아닌 시장 확대의 성격을 지니고 이는 개방과 경쟁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기업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의 차별하고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상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내 각 경제주체들간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대응전략

□ 제조업 분야

■ 자동차 및 부품산업 대응방안

구분	발전 방안	세부 전략
자동차 부품	기업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 박람회 참가 • 무역사절단 파견지원 • 자동차부품업체를 타겟으로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시장환경 변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 촉진 • 픽업트럭의 개발 추진
	특화지역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동남부지역과 국내 자동차특화지역(충남, 울산, 군산 등)과의 기술·투자협력 활성화 유도
	공동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자동차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한미간 공조 체제 구축 • 자동차 전장부품 등 기술표준화를 위한 협력 추진

■ 철강산업 대응방안

구분	발전 방안	세부 전략
철강	대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분쟁해소 및 원자재 수급안정화
	품질개선 및 산업구조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생산 공동지원센터(가칭)설립 • 고급/고부가가치 강재 중심의 생산구조로 전환
	특화지역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요산업과의 협력강화
	특화교육 및 연구기관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철강기업과 연계한 제철고 및 철강연구소 설립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구축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 전기·전자산업 대응방안

산업	발전 방안	세부 전략
전기 전자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미국시장 개척지원 • 국내 전자 전시회를 통합하여 세계적인 전시회로 육성
	전략적 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장비 등 미국의 경쟁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추진 •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 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 •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협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주력품목의 R&D확대 및 시범사업 추진 • 신산업 발굴 및 관련산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추진 • 원천기술 공동 개발, 평가팹 구축·운영 등을 통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재료 국산화 확대
	기술혁신성과 공유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 구축 • 단일표준 제정, 공동 부품개발, 지적권 공유활용 등 국내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협력 확대

■ 석유·화학산업 대응방안

구분	발전 방안	세부 전략
석유 화학	기업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현지 조달설명회 개최 • 미국 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대미 수출형 전진기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EU기업을 대상으로 FDI 유치
	생산구조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위 제품중심→고부가가치제품 생산구조로 전환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형소재 등 고부가가치분야 핵심기술 개발
	협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성 제고

□ 농업분야

■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 재검토

-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여가와 휴식의 장 제공, 전통과 문화, 국토환경 보전이라는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공주, 부여, 논산, 금산 등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의 인구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산업임
-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나 그간 농업은 제조업에 밀려 부차적인 산업으로 취급되어 왔음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 관리자의 관심과 국민의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시군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기구나 대책반을 마련하여 충남 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구조조정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임

■ 과수, 축산 등 피해부문의 지원

-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홍성, 예산의 축산, 천안, 아산의 과수, 금산 인삼 등의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품목에 대해서 도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음
- 그간 중앙정부 지원은 품목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피해 지원이므로 도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구조조정 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농업 경쟁력 강화

- 콩, 보리, 포도 등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유채, 메실 등의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고,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예산, 홍성 등의 축산부문에 대해서도 품질고급화, 차별화로 안정적인 국내산 존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인삼의 경우 미국산 화기삼(花旗蔘)과 품질차이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적으나 가공원료, 인삼엑기스 형태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 유통계열 확대, 지리적 표시제 도입,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표 4-1> 품목별 경쟁력 제고

품 목		대 책
축산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고급육 생산기술 확대로 품질향상 도모 · 충남도 자체브랜드인 ‘토바우(Tobawoo)’의 브랜드 파워강화 · 모든 한우에 이력추적제 적용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대화(질병감염 및 폐사율을 억제) ·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닭·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도입확대 - 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 걸쳐 신선도 및 위생수준 향상 - 소비자 신뢰도 제고
원예	과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재배시설의 현대화→ 품질경쟁력을 제고 -사과(키 낮은 사과원), 배·복숭아(밀식과원), 포도(비기림시설) 확대 · 수출형 전업농 육성 및 수출전문단지 조성
	채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품종·기술개발 및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마늘은 종구 갱신을 향상 · 대단위 주산단지 조성 및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유통계열 확대, 지리적 표시제도입, 안전성 확보 · 신품종 개발 및 생산·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수출전문단지조성
곡물· 임산물	콩·감자	· 생산우수단지 조성 및 브랜드 경영체 육성
	호두·밤	· 생산기반 정비추진 및 친환경·안전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구조 조정

- 충남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연적임
- 다만,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우선 개별 농가별로 경영주체, 소득규모, 생산품목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한 이후, 이를 토대로 농가유형별로 영농형편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 전업농에 대해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되, 은퇴·경작 포기·파산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인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유도함

■ 고령·중소농 대책마련

- 농외 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됨
- 도 차원에서 산불감시요원, 하천지킴이, 꽃길 가꾸기 등 고령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업농·중소농을 대상으로 토지집약형 농업은 규모의 확대를, 시설형 농업은 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을 지원하되, 고령농·생계형 농업의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마련

■ 농산물 수출의 확대

- 충남의 농수산물 수출은 '08년 3.5억불에서 2010년 4.6억불로 1.1억불 증가하였으며 '11년 충남의 수출목표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4.8억불 예상

- 품목별로는 인삼 가공품류와 밤·배 등의 수출이 급신장했고, 수출대상 국가도 미국·중국·일본에서 동남아시아·대만·유럽 등지로 다변화

<표 4-2> 충남의 농수산물 수출

(단위: 억불)

	2008	2009	2010	2011
충남	3.5	4.1	4.6	4.8(예상)

- 충남은 수출물류비·포장재 지원, 농수산물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수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함
- 가격 및 품질에서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지원필요
 - 충남의 경우 배, 밤, 인삼 등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
- 배, 밤, 인삼 등 유망수출 품목의 당도, 출하시기, 선도유지 등 품질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개발과 환경친화형 첨단농업 기술의 개발 필요
- 개방화시대에 해외 농림수산물과의 경쟁할 수 있으려면 수량위주에서 품질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역할 분담 및 전문성 강화하여 경영안정 도모
 - 수출업체는 생산관리 이행, 수출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주도적인 역할 수행하고 수출 농가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아울러 중국, 일본, 미주, 유럽 등으로의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수입국의 수출사정과 수입정책 변동에 따른 급격한 수출기복을 완화하고 충남의 해외무역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철저한 해외시장조사 수행

■ 농산물 가공

- 전방위 및 후방위 주체간 긴밀한 정보교류망의 확충과 네트워킹 강화를 통하여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포획할 수 있도록 1차-2차-3차 간에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복합산업화 추진
 - 이를 위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영세한 기존 업체에 대한 표준화, 효율화, 산업화 지원과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장인적 수공가공의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류시장 진출 전략 추진
- 로컬푸드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농민주도의 농가 직가공품 판로 확보 개척 지원
- 지역내 학교급식과 외식산업 등 지역내 대량수요처에 대한 발굴 및 개척에 주력
 - 특히 학교급식의 경우 친환경 고품질의 건강한 가공품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이에 대해 지역의 중소가공주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 당위성의 확보)

■ 농산물 유통

-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존 생산자조직과 중대농의 중앙시장 및 수출시장 경쟁력 증진을 위한 지원 지속
 - 이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생산-유통-가공-소비(급식, 외식, 가정) 단계의 각 주체들 간에 의사소통과 정보소통, 지식공유를 통한 네트워킹 촉진 지원
 - 지역시장 및 지역소비(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영세 가족소농의 판로 확보 및 소비자 접근성 증진

- 생산물의 지역성 증대를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 농어업 인력지원방안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고령농의 은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후계인력 양성 및 확보에 중점
 -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및 추가경영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교육을 통하여 세계농업과 경쟁할 수 있는 프로농업인 집중육성
- 시장개방 확대 등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능력 향상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추진
 - 농업인 품목별 전문화 추세에 따른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훈련 추진
- 수출업체 및 수출조직에서 매뉴얼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배과정과 선별·출하과정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전문가 확보가 어려움
 - 토양, 병해충, 수확시점 등을 관리하는 재배·생산관리 전문가와 출하등급 판정, 공동선별장 및 유통시설을 관리하는 유통시설 관리전문가 양성

V. 요약 및 결론

<표 5-1> 한·미/한·EU FTA 영향분석

	미국	EU
수혜예상	섬유류,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류 전자전기제품(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피해예상	농림수산물 화학공업품 기계류	농림수산물 화학공업품(석유화학, 정밀화학) 기계류

- 충남의 4대 핵심산업은 자동차산업,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산업으로 한·미/한·EU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은 긍정적 영향을, 석유화학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충남은 특히 전자전기제품(디스플레이)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충남은 전국대비 농림어업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시장개방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
- 충남도는 수혜품목에 대한 기술박람회 및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지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FTA 체결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 용자와 컨설팅 등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충남경제의 장기 전략산업과 연계된 시장개방의 생산성 효과 및 고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충청지역 기관단체와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지원시책을 수시 발굴해야 함
-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의 기반시설이나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발전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틀을 구성하고, 나아가 인적자원의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참고문헌>

- 김양중 외, “DDA/FTA 농어업 종합대책”, 충남발전연구원, 2011. 4
- 김성주 외, “한-EU FTA 체결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은
경제연구소, 2009, 7
- 신동호, “한미FTA가 충남지역에 미치는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2007.5
- 이승형,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전북발전
연구원 2008
- 유원근, “한-EU FTA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의 당면과제”, 통상정보연구
제10권 3호, 2008, 9
- 이종규 외,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7
- 이효영, “한-EU FTA : 그 의의와 파급효과”,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2007
-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 10
- “한-EU FTA의 경제적효과 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6
- “한-EU FTA:시장 및 업종영향”, 한국투자증권, 2009. 7